

柳宗元の 贈序 研究

洪 承 直

〈目 次〉

I. 序論	(3) 親綱感
II. 贈序의 대상과 내용	(4) 贈運者
(1) 出仕者	III. 結論
(2) 落第輩	

I. 序 論

贈序의 題名은 주로 '送□□□序' 또는 '贈□□□序'로 되어 있다. 古代 문체에서 동일한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기원 및 용도를 밝히고 기타 문체와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분분했던 것 중의 하나가 '序'이다. 혹자는 '序跋의 序'만을 언급하기도 하고,¹⁾ 혹자는 序跋의 序와 '贈序의 序' 또는 '雜記의 序'를 동일시하기도 했다.²⁾ 姚鼐에 이르러 비로소 序 중에서 序跋과 贈序를 분리하고 일부 序의

1) 姚鼐가 '十三類'에서 '贈序類'를 설정하기 이전까지의 '序'에 대한 언급은 주로 '序跋의 序'에 대한 것이었다.

2) 예를 들면 清代 王兆芳은 《文體通釋》의 「序」條에서 "序者, 本字作敘. 宴會賦詩而敘之. 又錢送有詩, 以贈言爲敘也. 詩序之變也. 主於即事記述, 寫以深情. 源出 晉王羲之之《蘭亭詩序》, 流有唐蘇晉《天子命宴序》·歐陽詹《宴東湖亭序》·賈會《錢張尚書赴朔方序》, 韓退之多送友序."라고 했는데, 이는 '序'에 대한 설명을 '贈序'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雜記의 성격을 규명하여³⁾ 序의 문체 분류는 계통이 서게 되었다.⁴⁾

序跋은 '머리말'과 '맺음말'을 통칭하는 말인데, 초기에는 서두에 쓰이기도 하고 말미에 쓰이기도 했기 때문에 단순히 序라는 용어로 序跋을 대신했으며⁵⁾ 그 용도는 저술·출판의 취지 또는 편집 체계·작가 근황 등을 설명하거나 작가나 작품에 대한 평론 및 유관 문제의 연구 동태 등을 소개하는 것이다. 또한 雜記의 성격의 序란 연회석상이나 어떤 모임에서 지은 序인데 그 내용이 序跋이나 贈序에 속하지 않는, 주로 작자의 감회를 읊은 序를 말한다. 王羲之의 〈蘭亭集序〉, 王勃의 〈滕王閣序〉, 李白의 〈春夜宴桃李園序〉, 柳宗元の 〈陪永州崔使君游宴南池序〉·〈序飲〉·〈序棋〉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들 작품은 題名이 序로 되어 있지만 내용과 성격상 雜記類에 가깝다.

반면에 贈序는 여러 단계의 변천을 거쳐 唐代에 와서 정착한 문체이다. 贈序의 원형은 '작별할 때 주고 받는 말'이다. 姚鼐는 老子와 顏淵·子路의 기록을 들어 기원을 설명하고 있지만,⁶⁾ 작별할 때 석별의 정과 당부를 담은 말을 주고 받는 것은 이보다 훨씬 이전부터 행해졌을 것이다. 다만 文人들의 경우에는 단순히 말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詩를 지어 贈答하기 시작함으로써 贈答詩가 대대적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그후 송별하는 자리에서 많은 贈答詩가 지어지면 詩 대신 문장을 지어 맨 앞에 序로 첨부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詩 없이 떠나는 사람에 대한 석별의 정·축원의 말·당부의 말 등을 담은 문장만을 전달하기도 했으니, 이것이 贈序의 기원이다. 贈答詩가 文人들이 '작별할 때 주고 받는 말'을 '詩化'한 것이라면 贈序는

3) 《古文辭類纂》, 「序目」: 「雜記類者: …… 柳子厚紀事小文, 或謂之序, 然實記之類也。」

4) 曾國藩은 “姚鼐의 十三類 분류의 단점을 보완한다”고 하면서 十一類로 분류했는데, 그 중에서 贈序를 다시 序跋로 편입시킨 것은 사실 改惡이다.

5) 序가 말미에 쓰여진 대표적인 예로 《史記》의 〈太史公自序〉를 들 수 있다.

6) 《古文辭類纂》, 「序目」: 「贈序類者: 老子曰, 「君子贈人以言」, 顏淵子路之相違, 則以言相贈處. ……」

‘贈答詩의 散文化’인 셈이다. 魏晉南北朝 시대의 작품으로는 晉代 傅玄의 〈贈扶風馬鈞序〉와 潘尼의 〈贈李二郎詩序〉 등이 전하지만 贈序는 唐代에 들어와 성행하기 시작했다.

唐代에 贈序가 대량으로 창작되어 하나의 문체로서 확립되었으며 이 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작가가 韓愈와 柳宗元이다. 贈序는 떠나는 사람에 대한 석별의 정·축원의 말·당부의 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지만, 韓愈와 柳宗元에 이르러 贈序의 내용이 대폭 확대되어, 贈序에서 일반적인 우정과 석별의 정을 서술하는 이외에 詩文을 논하고, 시사를 토론하고, 감회를 기탁하는 등 다양한 내용에 敘事·說理·抒情 등 다양한 서술 기법을 발휘했다. 특히 韓愈의 〈送孟東野序〉·〈送李愿歸盤谷序〉·〈送董邵南序〉 등은 유려한 필치에 감개와 寓意를 담았다. 錢穆은 韓愈의 贈序가 贈答詩를 散文化한 것이면서 散文을 詩의으로 서술했다고 했다.⁷⁾

柳宗元은 卷 22~卷 25에 46편의 贈序를 남기고 있다. 錢穆이 말한 대로 韓愈의 贈序가 贈答詩의 산문화요 산문을 詩의으로 서술한 것이라면, 柳宗元의 贈序는 敘事的이요 說理的이다. 贈序는 ‘누군가를 전송하면서 주는 글’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사람의 처지·조우 또는 이와 관계있는 시국의 상황과 작자의 견해나 심정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贈序는 받는 대상에 따라 내용과 성격이 구분된다. 柳宗元의 贈序는 대상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柳宗元의 생각 특히 時事 및 시국에 대한 다양한 평론들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II. 贈序의 대상과 내용

(1) 出仕者

7) 錢穆, 《雜論唐代古文運動》: 「故韓集贈序一體, 其中佳構, 實皆無韻之詩也. 今人慕求爲詩體之解放, 欲創爲散文詩, 其實韓公先已爲之. 其集中贈序一類, 皆可謂之是散文詩. 由其皆從詩之解放中來, 而仍不失詩之神理韻味也.」

《柳河東全集》卷 22에서 卷 23 前半까지 出仕하는 인물 또는 전근하는 관리에게 주는 贈序가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주로 관리로서 지녀야 할 근무 자세·인품 등을 당부하는 것들이어서, 서술 방식은 說理와 敘事를 배합하고 있다. 柳宗元이 강조하는 관리의 근무 자세는 ‘民之役’ 또는 ‘役於人’ 이론이다.

范生은 말했다: “…… 무릇 벼슬하는 것이 훌륭하다는 것은 백성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남이 수발해주고 재산이 많아 몸이 편안한 것보다는 나의 교화와 가르침이 제대로 이루어져 마음이 편안한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배운 것을 발휘하여 다른 것에 혜택을 주려 하는 것일 뿐이다. 무릇 관리가 된다는 것은 백성의 심부름꾼이 된다는 것이다. 백성의 심부름을 하고 그 댓가를 먹고 사는데, 보답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제 나는 자애와 예절이 자리잡게 하고 속임과 거짓·무례함과 포악함을 없애서, 이 백성을 은혜로 보살핀 이후에야 녹봉을 받을 것이요, 그래야만 내 마음에 흠족하고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이것만을 이론다면 나로서는 족하다.”⁸⁾

이 贈序의 대상인 范傳眞은 京兆武功尉에서 宣州寧國令으로 승진 발령을 받아 떠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의 승진을 축하하고 부러워 하자 이에 답하는 말을 중심으로 贈序를 쓴 것이다. 范傳眞의 입을 빌어 말한 위의 대목은 〈送薛存義序〉와 더불어 柳宗元의 공직 사상을 말해 주는 정수라고 할 수 있다.

무릇 이 땅의 관리가 된다고 할 때 그대는 그 말은 바 직분을 아는가? 백성의 심부름을 할 것이요, 백성을 부러먹지 않을 뿐이다. 백성은 이 땅을 갈아 먹고 살면서 땅에서 나는 것의 십분의 일을 내어서 관리들을

8) 卷 22, 〈送寧國范明府詩序〉: 『范生曰: “…… 夫仕之爲美, 利乎人之謂也. 與其給於供備, 孰若安於化導? 故求發吾所學者, 施於物而已矣. 夫爲吏者, 人役也, 役於人而食其力, 可無報耶? 今吾將致其慈愛禮節, 而去其欺僞凌暴, 以惠斯人, 而後有其祿, 庶可乎吾心而不愧於色. 苟獲是焉足矣.”』

고용함으로써 자기들을 공평하게 다스리게 해달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 댓가를 받고 할 일은 태만히 하고 있다. 온세상이 모두 그렇다. 어찌 태만히만 할 뿐이겠는가? 이제는 도둑질까지 한다. 만약 너의 집에서 어떤 인부를 한 사람 고용했는데 그 인부가 너에게서 댓가를 받고 일을 태만히 하고 또 너의 그릇까지 도둑질하면 반드시 몹시 화를 내며 쫓아낼 것이다. 지금 온세상에 이런 일이 많은데 백성이 감히 화를 내거나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는가? 형세가 다르기 때문이다. 형세는 다르되 이치는 같은데 우리 백성을 어찌할까? 이 이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겠는가?)

두 贈序에서 말하는 '民之役' '役於人'의 공직 사상은 동일하다. 〈送寧國范明府詩序〉 인용 부분의 話者가 范傳眞이라 할지라도 柳宗元 역시 동조하고 共有하는 사상임을 인정할 때 '民之役' '役於人'의 공직 사상은 柳宗元이 일생을 통하여 변함없이 지녔던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送寧國范明府詩序〉는 長安에서 쓴 것이고 〈送薛存義序〉는 永州에서 쓴 것인데,¹⁰⁾ 出世와 沒落이라는 처지의 극단적인 변화에서도 공직에 대한 관념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柳宗元 본인이 일생 동안 변함없이 '民之役' '役於人'의 공직 사상을 견지했듯이 다른 사람의 인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시세나 처지의 변화에 관계없이 正義와 志操를 지키는 것을 제일로 삼았다.

내가 어렸을 때 九江에서 蕭鍊 형을 처음 만났고, …… 그 후 스무 살 때 潯陽에서 다시 형을 만났는데, 그의 德을 보니, 九江에서 처음

9) 卷 23, 〈送薛存義序〉: 「凡吏于土者, 若知其職乎? 蓋民之役, 非以役民而已也. 凡民之食于土者, 出其十一備乎吏, 使司平於我也. 今我受其直怠其事者, 天下皆然, 豈惟怠之, 又從而盜之. 向使備一夫於家, 受若直, 怠若事, 又盜若貨器, 則必甚怒而黜罰之矣. 以今天下多類此, 而民莫敢肆其怒與黜罰者, 何哉? 勢不同也. 勢不同而理同, 如吾民何? 有違于理者, 得不恐而畏乎?」

10) 〈送寧國范明府詩序〉에서 范傳眞이 동료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는 柳宗元도 監察御史 때였음을 알 수 있으며, 〈送薛存義序〉에서 "存義假令零陵三年矣"라고 한 것으로 보아 永州에서 지냈음을 알 수 있다.

만났을 때와 같아서, 세속의 욕심도 그 德을 바꾸지 못했다. 이로부터 과거에 응시했다 세 번 실패하여, 누추한 거리로 쫓겨나 살아서, 내가 찾아가 자주 만났는데, 그의 道를 보니, 澤宮에서 다시 만났을 때와 같아서, 실패와 좌절도 그를 굴복시키지 못했다. 세월이 흘러 太常에게 발탁되어, 명성이 長安을 진동시키고, 모두가 우러러 사모했는데, … … 그의 뜻을 보니 누추한 거리에서 만났을 때와 같아서, 득의했다고 해서 뜻이 변화되지 않았다. 군자는 의지가 바르고 기개가 한결같고, 성실하고 순수하며 본분이 정해져 있어, 일찌기 나아가고 물러남을 두 가지 道로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굴복하고 거드름피우지 않는다. 근본을 굳게 하고 바름을 기르는 것, 이와 같을 뿐이다.¹¹⁾

‘근본을 굳게 하고 바름을 기르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처지에서 도 버릴 수 없는 君子의 모습임을 강조한다. 卷 23의 〈送薛判官量移序〉에서도 “세상에 나가 벼슬하다 보면 고생하고도 죄를 입는 경우가 있어, 보통 사람은 이 상황에 처하면 원망하고 분해하며 위 아래로 진정하고 호소하지 않는 경우가 드문데, 이는 흔히 있는 모습이요, 이런 혼한 모습과 다르다면 그 사람의 道는 마땅히 빛을 발할 것이다”¹²⁾라고 하여,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원한이나 분노를 품지 않고 의연하고 침착하게 대처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作文에 있어서 내용과 형식의 중요성을 똑같이 강조했던 柳宗元은 인간의 수양에 있어서도 內的인 요소와 外的인 요소를 똑같이 강조한다.

君子는 안에 든 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 걸을 꾸미는 것과 안에 든

11) 卷 22, 〈送蕭鎮登第後南歸序〉: 「始余幼時, 拜兄於九江郡, …… 先禮而冠, 過兄於澤宮之中, 觀其德, 如九江之拜, 蓋世俗所不能移也. 自是戰藝三北, 左次陋巷, 余亟會于其居, 視其道, 如澤宮之遇, 亦挫抑所不能屈也. 逾時而名擢太常, 聲動京國, 士輩仰慕, …… 窺其志, 如陋巷之會, 又得意所不能遷也. 君子志正而氣一, 誠純而分定, 未嘗擯出處爲二道, 判屈伸於異門也. 固其本, 養其正, 如斯而已矣.」

12) 「仕於世, 有勞而見罪, 凡人處是, 鮮不怨懟忿憤, 列於上, 愬於下, 此恒狀也. 異於恒者, 其道宜順.」

것이 있으면서 겉을 꾸미지 않는 것을 병통으로 여긴다. 안에 든 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 겉을 꾸민다면, 이는 덮개를 하고 함정을 파놓는 것이니, 이보다 더 큰禍가 어디 있겠는가? 안에 든 것이 있으면서 겉을 꾸미지 않는다면, 이는 재목을 태우고 보석을 부수는 것이니, 이보다 심한 허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보석을 자르고 다듬고 쪼고 갈며 화살촉을 갈고 깃을 꽂는 道가 있는 것이요, 聖人は 이를 소중히 여긴 것이다. …… 나는 그대가 《詩》와 《禮》를 冠과 신발로 삼고, 《春秋》를 옷깃과 띠로 삼고, 史書를 노리개로 삼아, 낭랑하게 璆瑋·衝牙같은 옥소리가 울리고 찬란하게 山龍·華蟲같은 아름다운 무늬가 피어나기를 바란다. 그러면 관직에 올라 宗廟·朝廷에서 擯讓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날을 기약할 수 있으리라.¹³⁾

'안에 든 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 겉을 꾸미는 것'은 타인을 함정에 빠트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안에 든 것이 있으면서 겉을 꾸미지 않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모두 부정한다. 文章에서 내용과 형식의 兼全을 추구하는 것이나 수양에서 內飾 못지 않게 外飾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中道의 추구이다.

논자들은 '大梁에는 사나운 장군과 여섯 군졸이 많아 난리가 자주 일어나서, 일찌기 조용하고 평온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中道로 다스리기가 곤란하다'고 말한다. 대개 장군이 교만하고 군졸이 포악하게 놓아두면 머지않아 소요가 일어날 것이니, 백성을 평화롭고 안정되게 다스리는 방법이 아니요, 장군을 주벌하고 군졸을 삭탈하면 외적이 침입하는 근심거리가 생길 것이니, 도성을 방어하고 변방을 굳건히 지키는 방법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땅히 위무하며 추켜주고 따듯하게 회유하여, 마음에

13) 卷 22, 〈送盧廣秀才南遊序〉: 「君子病無乎內而飾乎外, 有乎內而不飾乎外者, 無乎內而飾乎外, 則是設覆爲穿也, 禍孰大焉? 有乎內而不飾乎外, 則是焚梓毀壤也, 詎孰甚焉? 於是切磋琢磨括羽之道, 聖人以爲重, …… 吾願子以詩禮爲冠履, 以春秋爲襟帶, 以圖史爲佩服, 琅乎璆瑋衝牙之響發焉, 煌乎山龍華蟲之采列焉, 則擯讓周旋乎宗廟朝廷斯可也。」

서 우리나라와 북송하게 한 연후에 위엄과 포용의 道가 갖추어질 것이다. 14)

柳宗元의 丈人 楊憑의 동생 楊夔이 吏部郎中에서 宣武軍判官으로 부임하는 것을 전송하는 贈序이다. 大梁은 宣武軍의 옛 지명이다. 군사적 요충지여서 군대가 많이 주둔했고, 따라서 兵亂이 많이 일어나 통치가 곤란했던 지역이다. 따라서 楊夔이 이 지역을 통치하러 가는 것을 계기로 이 지역의 통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이 贈序의 주된 내용이다. 이에 대한 해결은 “강함과 부드러움을 겸하여 사용해야 한다”¹⁵⁾고 주장하고 있다. ‘剛’과 ‘柔’의 兼用을 주장한 것은 柳宗元이 사상과 처세에 있어서 中庸의 道를 최고의 덕으로 간주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崔群을 보내는 贈序에서도 “나는 항상 ‘剛’과 ‘柔’를 조절하지 못하여 순간적으로 옳게 처신하지 못했는데, 韓泰에게서 ‘正’을 배우고 李建에게서 ‘和’를 배우고, 崔君에게서 그 중간을 배워, 말을 잊고 서로 바라보매, 묵묵히 道에 합치되었다”¹⁶⁾고 하여 그가 끊임없이 中庸의 道를 추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柳宗元은 出仕 또는 전근하는 관리들에게 주는 贈序에서 주로 봉사 정신 ‘正義’ 內外와 剛柔를 겸비한 中道の 政치를 추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예외로 卷 23의 〈同吳武陵贈李睦州詩序〉에서는 비분강개한 어조를 담고 있다.

李睦州는 李錡의 휘하에 있던 인물이다. 李錡는 부친의 蔭功으로 관직에 올라, 德宗 때 刺史·觀察使·轉運使를 겸임하면서 鹽鐵과 酒類의 전매권을 장악하고 군비를 양성하며 모반을 준비했는데,

14) 卷 22, 〈送楊夔郎中使還汴宋詩後序〉: 『談者謂大梁多悍將勁卒, 亟就滑亂, 而未嘗底寧, 控制之術, 難乎中道. 蓋以將驕卒暴, 則近憂且至, 非所以和衆而又民也. 將誅卒削, 則外虞實生, 非所以抒城而固圉也. 是宜慰薦庶諭, 納爲腹心, 然後威懷之道備.』

15) 앞과 같음: 『參剛柔而兩用, 化逆順而同道, 既去大慙, 遂安有衆.』

16) 卷 22, 〈送崔群序〉: 『余以剛柔不常, 造次爽宜, 求正於韓, 襲和於李, 就崔君而考其中焉, 忘言相視, 默與道合.』

憲宗이 즉위하여 그의 세력을 약화시키려 하자 반란을 꾀했다. 그런데 李陸州가 동조하지 않자, 李鎬는 그를 모함하여 僻地에 유배당하게 했다. 李陸州는 이후 누명을 벗게 되었지만 복권은 쉽게 되지 않아 吳武陵과 柳宗元이 격려의 시를 쓰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贈序의 全篇이 위에서 요약한 李陸州의 처지를 자세하게 소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말미에 吳武陵과 柳宗元이 격앙된 감정으로 贈詩하게 되었다는 간략한 소개가 있을 뿐이다.

는자들은 ‘마땅히 李陸州를 중앙 조정으로 불러들여 그의 억울함을 밝혀야 한다’고 한다. 그 후 대사면이 있어서 비로소 永州로 옮겨왔다. 그러나 아직도 長安과는 4,000리나 떨어진 곳이지만 李陸州는 스스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吳武陵은 강건한 인물이어서 이런 사실을 마음 속에 묻어두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에 그 정성을 떨쳐 일으켜서 그 소리도 카랑카랑하게 詩를 지은 연후에야 마음에 맞았다. 내가 본시 李陸州의 道를 익히 알고 있었으되 마음 속에 묻어두고 표현하지 않은 것이 오래 되었건만, 吳武陵이 먼저 한 것을 듣고 마음에 부딪힘이 있어 마치 종과 북을 두드린 듯 나도 모르게 소리가 울려나와서, 마침내 詩를 짓고 序를 쓴다.¹⁷⁾

李陸州의 억울한 처지에 비분강개하는 吳武陵과 柳宗元의 심정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한편으로 균형을 잃은 듯한 느낌을 주는 이런 서술 방식은 李陸州가 억울한 처지에 처하게 된 과정을 클로즈업하는 효과를 가져와, 독자가 비분강개하는 작자와 쉽게 동감하도록 한다.

(2) 落第輩

17) 卷 23, 〈同吳武陵贈李陸州詩序〉: 『論者謂宜還陸州以明其誣, 既更大赦, 始移永州. 去長安尚四千里, 陸州未嘗自言. 吳武陵, 剛健士也, 懷不能忍. 於是踴躍其誠, 鏗鏘其聲, 出而爲之詩, 然後憊於內. 余固知陸州之道也熟, 銜匿而未發且久. 聞吳之先焉者, 激於心, 若鐘鼓之考, 不知聲之發也, 遂繫之而重以序.』

唐代的 官制 선발은 매우 엄격했다. 중앙 집권을 공고히 하고 문벌의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비된 과거 제도는 보통의 士人들이 官衙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따라서 이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士人들의 경쟁은 치열했다. 그중의 하나로 우선 鄉擧의 형식으로 원래 지방에서 재주와 행실이 뛰어나 추천을 받았을 경우를 秀才라 하여, 이들에게도 과거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졌다. 秀才로 추천되어 과거에 합격했을지라도 다시 이들의 능력을 인정하여 인사에 선발되어야만 비로소 관리로의 길이 열렸다. 官界에 진출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로 어려웠으며, 따라서 이 길을 향한 지방생의 경쟁 또한 극심했다.

조정에서 문장으로 인재를 구하여, 매년 布衣를 관복으로 갈아입고 장부에 관리로 등록되어 有司를 찾는 사람의 숫자가 孔子 제자의 거의 반수에 달한다. 禮部侍郎이 甲乙科에서 발탁하여 司徒에게 올리는 인물의 숫자 또한 孔子의 우수한 제자의 두 배이다.¹⁸⁾

이런 상황에서 柳宗元 본인도 벼슬길에 뜻을 두고 上京하여 俊士·造士를 거치는 등 9년 동안 수련을 쌓은 연후에 진사에 급제했다. 한편 柳宗元은 과거에 낙방했거나 급제하고서도 추천을 받지 못하여 관직에 오르지 못하고 귀향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贈序를 몇 편 지었다. 대개는 당사자의 수양이나 가세를 보아 충분히 관직에 오를 자질이 갖추어졌으니 낙심하지 말고 권토중래하라는 격려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卷 23의 〈送嚴公貺下第歸興元觀省詩序〉에서 嚴公貺이 進士 시험에 응시한 것을 장사하는 것에 비유하여 “내가 내 재주를 써달라고 조정에 바쳤는데, 禮部의 장수가 사들이지 않았으니, 물건이 구매자의 요구에 맞지 않은 것과 같은지라,

18) 卷 23. 〈送辛殆庶下第遊南鄭序〉：『朝廷用文字求士，每歲布衣束帶，偕計吏而造有司者，僅半孔徒之數。春官上大夫擢甲乙而升司徒者，於孔氏高弟亦再倍焉。』

그 허물을 피하여 내일 아침에 떠나려고 한다”¹⁹⁾고 하자 柳宗元은 嚴公황의 家敎를 자세히 내세운 다음 “嚴氏 집안의 가르침은 다른 가문에서까지 칭송되어 공지와 모범을 보였는데, 자네는 결점을 내 세워 자신만을 탓하고 이와 같이 겸손하니, 장수가 사지 않은 것이 무슨 걱정거리라고 자신에게 야박하게 하는가?”²⁰⁾라고 하여, 대화 형식으로 嚴公貺을 위로했다. 元公瑾이 낙제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승한 卷 23의 〈送元秀才下第東歸序〉는 전형적인 贈序의 형식이다.

① 확고한 의지를 품은 사람은 지난한 곤경에 처해도 그의 지조를 바꾸지 않고, 남다른 재주를 갖춘 사람은 굴욕과 탄압을 받아도 그의 명성이 꺾일 수 없다. 心氣를 가다듬고 안정시켜 이 두 가지를 얻으면, 비록 곤경에 처하고 굴욕을 당해도 君子는 근심하지 않는다.

② 元氏 집안 자손(公瑾)은 확고한 의지와 남다른 재주를 갖췄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말은 공손하고 믿음있고, 행실은 단정하고 조용하다. 학문을 강론함에 용기있고, 서둘러 학업에 정진했다. 京師에 유학와서 누추한 곳에서 살며, 일을 시킬 童僕도 없고 물건을 구입할 재물도 없어, 지난한 곤경에 처했다고 하겠는데, 그의 지조는 더욱 굳어졌으니, 확고한 의지를 품은 사람이다. 재주가 빼어나고, 문장은 간결하면서 모든 것이 완비되었다. 이치를 논함이 뛰어나고, 갑작스런 상황에 잘 대응했다. 京師에서 회계에 종사하다, 丙科의 추천을 받아서 春卿에게 그의 재주를 써달라고 바쳤지만 세 번 쫓겨나는 치욕을 당했으니, 굴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의 명성은 더욱 퍼졌으니, 남다른 재주를 갖춘 사람이다. 진정 心氣를 가다듬고 안정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었겠는가?

③ 나는 그가 고향 殷墟로 돌아가서 의지를 수양하고 재주를 더하고 자 한다는 말을 듣고, 그가 의기소침하여 침울하거나 분함을 마음에 품어 뜻을 이루지 못할까 염려하여, 그를 전승하며 몇 마디 깨우쳐주려 한다.

19) 『吾歎藝不售於饒賣之賈，貨不中度，敢逃其咎，詰朝將行，……』

20) 『……是可事嚴氏之敎，聽乎他門，使有矜式也。而吾子又引惡內訟，搗謙如此，其何患乎賈之不售而自薄哉？』

“무릇 盧·豪曹과 같은 名劍을 가진 사람은 鈞鏑소같은 맹수를 잡아 벨 기회가 없을까를 근심하며, 劍이 날카롭지 않을까는 근심하지 않는다. 지금 그대는 명검을 가졌고, 그 명검이 날카롭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좋은 시기를 만났는데, 무엇을 근심하는가? 같고 연마하며 앉아서 기다리면 될 것이다.”라고 하자 즐거운 마음으로 떠나갔다.²¹⁾

① 일반적으로 君子로서 지녀야 할 어떤 덕목을 소개하고, ② 상대방의 수양·인품·언행이 이와 합치됨을 설명하고, ③ 위로와 격려의 말을 첨가하는 이런 형식은 전형적인 贈序의 형식이다. 그러나 일부 贈序에서는 위로와 격려로 그치지 않고 어떤 방법을 권유하거나 과거 제도에 대한 약간의 평론을 덧붙이기도 한다. 進士에 급제하는 방법의 하나로 ‘先聲後實’의 방법을 권하는 것이 그 한 예이다.

이른바 ‘先聲後實’이라는 방법이 어찌 군대에서만 사용하는 것이겠는가? 文人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지방의 각 州郡에서 有司를 찾아와 進士에 급제하게 해주기 바라는 사람이 해마다 수백 명에 이른다. 모두 자신 있다 하는 문장을 많이 지어, 시사를 논하고 과거를 평하며, 자기 문장이 아름답고 훌륭하다 각축하여, 有司가 하루 아침에 받는 문장이 수천만 字에 달하기 때문에, 십분의 일도 읽지 못한다. 有司는 누웠다 일어나는 것만도 너무 피곤하고, 눈이 어지러워 보고 싶지 않고, 마음이 최잔하여 생각조차 하기 싫으니,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는 우수한 인재라 하나도 빠트리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거짓이다. 오직 그 명성을 먼저 듣고 있던 사람의 글만 읽으며, 눈과 마음을 집중하여 볼 것이니, 그러므로 미리

21) 卷 23, 〈送元秀才下第東歸序〉: 『①周乎志者, 窮蹙不能變其操: 周乎藝者, 屈抑不能貶其名. 其或處心定氣, 居斯二者, 雖有窮屈之患, 則君子不患矣. ②元氏之子, 其殆庶周乎! 言恭而信, 行端而靜. 勇於講學, 急於進業. 既遊京師, 寓居仄陋, 無使令之童, 闕交易之財, 可謂窮蹙矣, 而操逾厲, 志之周也. 才澹而清, 詞簡而備. 工於言理, 長於應卒. 從計京師, 受丙科之薦, 獻藝春卿, 當三黜之辱, 可謂屈抑矣, 而名益茂, 藝之周也. 苟非處心定氣, 則曷如此哉? ③余聞其欲退家股壻, 修志增藝, 懼其沈鬱傷氣, 懷憤而不達, 乃往送而諭焉. 夫有湛盧豪曹之器者, 患不得犀兕而刺之, 不患其不利也. 今子有其器, 宜其利, 乘其時, 夫何患焉? 磨礪而坐待之可也. 遂欣欣而去.』 ①②③ 번호는 필자가 붙임.

명성을 날린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드물다.²²⁾

날마다 수도 없이 쏟아지는 進士 지망생의 文章 중에서 자기의 작품이 有司에게 한 번 읽힐 기회를 얻게 하려면 먼저 長安에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권고이다. ‘先聲後實’이란 그 소문을 듣고 有司는 그 인물의 文章을 읽고 과연 名不虛傳임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안에 든 것이 있으면서 겉을 꾸미지 않는 것’도 자신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柳宗元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학문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과거를 통한 관계 진출에 있었던만큼 이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중의 하나가 채택 과목에 관한 문제이다. “세간에는 進士 시험의 병폐를 들어 孝悌·經術·兵農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민심을 두터이 하여 나라가 잘 다스려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²³⁾고 하여 進士 시험 과목의 개편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말한다: “아니다. 지금 세상에서 進士를 높이 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온 천하에서 집집마다 훌륭한 인물을 추대하여, 공경대부의 이름난 자제나 나라의 우수한 백성들이 모두 進士科로 물리는 것이다. 또 다시 과목을 바꾸면 다른 인물을 뽑을 수 있겠는가? 아니다. 모두들 숭상하는 것이 文學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가는 것일 뿐, 孝悌를 높이 사면 孝悌에서 뽑힌 인물도 그 사람일 것이며, 經術을 높이 사면 經術에서 뽑힌 인물도 그 사람일 것이요, 비록 兵科나 農科를 높이 사도 모두 마찬가지일

22) 卷23, 〈送韋七秀才下第求益友序〉: 『所謂先聲後實者, 豈唯兵用之? 雖士亦然. 若今由州郡抵有司求進士者, 歲數百人. 咸多爲文辭, 道今語古, 角夸麗, 務富厚, 有司一朝而受者幾千萬言, 讀不能十一. 即僂仰疲耗, 目眩而不欲視, 心腹而不欲營, 如此而曰吾能不遺士者, 僞也. 唯聲先焉者讀, 至其文辭, 心目必專, 以故少不勝.』

23) 卷 23, 〈送崔子符罷舉詩序〉: 『世有病進士科者, 思易以孝悌經術兵農, 曰庶幾厚於俗, 而國得以爲理乎.』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가 한 말에 따라 그의 행실을 살피고 그의 지혜를 따져서, 사람에게 감화를 주고 백성에게 이익을 줄 수 있으면 그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안의 바탕보다 겉의 꾸밈이 지나쳐서 행실은 볼 것이 없고 지혜는 고려할 것이 없는 자는 낮은 자리에 앉히면, 풍속은 이로써 두터워질 것이요 나라는 이로써 다스려질 것이니, 과거 과목을 바꿀 필요는 없다."²⁴⁾

과거의 과목이 文學 중심이건, 孝悌 중심이건, 혹은 經術 중심이건, 심지어 兵·農을 중심으로 하건 간에 선발되는 인물은 마찬가지로 라는 것이다. 요컨대 선발하는 방법보다는 선발한 이후의 능력 평가와 감독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지금의 제도를 보면, 벼슬길에 오르는 모든 사람은 해마다 吏部에 이름을 등록하고, 吏部에서는 등급을 참고하여 나누고 합해서, 모두 30명을 한 조로 甲이라고 하여, 명단을 셋 작성해서 하나는 有司가 보관하고 나머지 둘은 中書와 門下에서 보관하게 한다. 대대적인 인사 이동과 고과 평가가 있을 때마다, 결과와 성적을 취합하여 그 성취 정도를 보아, 有司가 걸맞지 않은 많은 사람을 쫓아낸다. 이로 말미암아 관리들은 간교한 계략을 써서 위엄을 세울 수 있었고, 賊臣들은 이 사실을 알고 권력을 농락하여 거짓과 은밀한 수단으로 관리들을 내쫓고 바꾸게 하는데, 그 실체가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반드시 단정하고 성실하며 일에 익숙하고 분별있고 통달하여 이 업무에 충실한 사람을 찾아 관리로 임명해서 이를 관장하게 했고, 3년이 되면 다시 관직을 더해 주어 그 자리를 떠나게 했다.

25)

24) 淵과 같음: 『柳子曰: "否. 以今世尚進士, 故凡天下家推其良, 公卿大夫之名子弟, 國之秀民舉歸之, 且而更其科以爲得異人乎? 無也. 唯其所尚文學, 移而從之. 尚之以孝悌, 孝悌猶是人也. 尚之以經術, 經術猶是人也. 雖兵與農皆然." 曰: "然則宜如之何?" 曰: "即其辭, 觀其行, 考其智, 以爲可化人及物者, 隆之, 文勝質, 行無觀, 智無考者, 下之, 俗其以厚, 國其以理, 科不俟易也."』

25) 卷 22, 〈送寧國范明府詩序〉: 『近制, 凡得仕於王者, 歲登名於吏部, 吏部則必參其等列, 分而合之, 率三十人以爲曹, 謂之甲, 名書爲三, 其一藏之有司, 其二藏之中書, 洎門下. 每大選置大考績, 必關決會驗而視其成, 有不合者, 有司罷去甚衆. 由是吏』

관리의 考課·인사 제도가 아무리 치밀하고 공평하게 짜여져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담당 관리의 善惡 여부에 따라 결과는 天壤之差인 것이다.

이와 같이 과거 낙방생들에게 주는 贈序에서는 위로와 격려 외로인들의 그릇된 동용으로 인하여 병들어가는 科擧 및 考課 제도에 대한 개탄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3) 親屬

《柳河東全集》卷 24의 전반부에 〈送從兄僞罷選歸江淮詩序〉·〈送從弟謀歸江陵序〉·〈送澣序〉·〈送內弟盧還遊桂州序〉·〈送表弟呂讓將仕進序〉 등 친가 또는 외척들에게 주는 贈序 5편이 수록되어 있다. 〈送從兄僞罷選歸江淮詩序〉만 長安에서 지은 것이고 나머지 4편은 貶謫 시기에 지은 것이다. 일가 친척인 만큼 이들 贈序의 내용은 가문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드러내는 것이 주류이다.

형님께서서 관리의 인사이동에 따라 淮陽에서 長安까지 오셨는데, 겨울 10일이 되도록 임명장이 오지 않자, 옷깃을 여미고 淮陽으로 물러가시며 나를 보고 말씀하셨다: “옛날 우리 조상 士師께서는 쇠퇴한 周나라 시대에 태어나, 道와 더불어 浮沈하여 世人의 모범이 되셨다. 그러므로 곧은 道로써 관직에 나가, 세 번을 쫓겨났으되 떠나가지 않으시어 孔子가 칭찬했고, 버림받고도 원망하지 않고 곤경에 처하고도 고민하지 않아 孟子가 칭찬했다. …… 너는 마땅히 재주가 다하여 울적한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먼 길을 덧없이 오가는 나의 분함을 떨쳐낼 겸, 문장으로 드넓히고 노래로써 피어나게 해야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희망을 걸지 않으면 또 누구에게 희망을 건단 말이나?”²⁶⁾

得爲姦以立威, 賊知以弄權, 詭竊竄易, 而莫示其實. 必求端慝而習於事拂違而動其務者, 命之官而掌之, 居三年, 則又益其官而後去其職。」

26) 卷 24, 〈送從兄僞罷選歸江淮詩序〉: 「伯氏自淮陽從興, 抵于京師, 冬十月, 牒計不至, 攝枉而退, 願謂宗元曰: “昔吾祖士師, 生于衰周, 與道同波, 爲世儀表. 故直道而仕, 三黜不去, 孔氏稱之. 遺佚而不怨, 厄窮而不懼, 孟子贊之. ……子當慰我窮局

士師는 柳下惠이다. 임금을 보필하고 나라를 바로잡겠다는 일념으로, 聖君이건 暴君이건 가리지 않고, 미천한 관직도 사양하지 않고 出仕하여 直言을 서슴치 않았기 때문에 孟子로부터 '聖之和者'라는 호칭을 얻었다.²⁷⁾ 위의 贈序는 從兄 柳僞이 관리의 인사이동에서 탈락되어 淮陽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조상 柳下惠의 기풍을 이어받아가문을 일으킬 사람은 오직 柳宗元 뿐이라는 기대와 당부의 말을 직접 화법으로 소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柳僞의 당부가 아니더라도 柳宗元은 자라면서 옛 성현 중에서 특히 자신의 조상인 柳下惠에게 애착과 존경을 지녔고 그 기풍을 이어받으려고 했을 것이다. 따라서 柳宗元이 일생 동안, 특히 貶謫 이후 다시 증양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 후반기에도 사면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도 柳下惠의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柳宗元의 현실 참여 정신은 가깝게는 武后 이후 자꾸만 쇠락해가는 가문을 부흥시키겠다는 소망에서도 기인한다. 위의 贈序 후반에서 柳宗元의 겸허한 각오를 읽을 수 있거니와, 그러나 貶謫된 이후에는 그러한 소망과 각오를 실현할 희망이 사라져 비통의 감정을 담고 있다.

사람들은 모두 우리 가문은 대대로 쌓은 덕이 있으므로 마땅히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했다. 高宗 때 尙書省에 모두 22명이 재직하고 있다가, 武氏의 혼란을 만나서 쇠미해졌는데, 武氏가 패하여 물러난 뒤에도 다시 흥성하지 못했다. 尙書省의 관리가 된 사람은 그동안 십수 년만에 겨우 하나가 있었다. 永貞 연간에 나와 族兄 登이 함께 禮部의 관속이 되었다. 내가 쫓겨나고 季父 公綽께서 다시 刑部郎이 되자, 尙書省 관리는 더욱 드물어졌다. 또한 종종에서 文雅에 힘쓰는 사람을 보면 특히 눈에

之價，祗我行役之價，博之以文，發於詠歌。吾非子之望，將誰望焉？”

27) 《孟子》，〈萬章·下〉：「柳下惠不羞汚君，不辭小官，進不隱賢，必以其道。遺佚而不怨，窮而不憫。與鄉人處，由由然不忍去也。『爾爲爾，我爲我，雖袒裼裸裎於我側，爾焉能浼我哉？』故聞柳下惠之風者，鄙夫寬，薄夫敦。……柳下惠，聖之和者也。」 또한 〈公孫丑·上〉에서도 같은 내용이 출현한다.

되는 사람이 10명 정도인데, 본시 그 바탕을 仁義로 다졌으니 우리 가문이 다시 일어날 것인가? 내가 죄인이 되어 남쪽 지방에서 살고부터, 뚜렷하게 눈에 띄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28)

高宗 때 尙書省에 모두 22명의 族人이 진출했는데 武后 이후 10여년에 한 명이 진출했다는 것은 거의 몰락의 지경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永貞 연간까지 族兄 柳登과 禮部에 몸담고 있어서 겨우 가문의 관맥을 유지하던 柳宗元 자신이 축출당한 것은 울분과 비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따라서 일가 친척에게 주는 贈序에서는 감정적 언어를 많이 사용하여 울분과 비탄을 드러내고 있다.

아아! 우리 가문이 지지부진한 지가 오래 되었다. 식자들은 “오늘날에 와서야 점차 인물다운 인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너와 같은 행실이라면 이 어찌 그들이 말하는 인물다운 인물이 아니겠는가? …… 내가 지혜롭지 못하여 죄를 얻고 楚越 지방으로 쫓겨난 지 6년이 되었다. 띠와 풀로 집을 짓고, 湘水 서쪽에 채마밭 만들고, 연못을 훑으면 물고기 잡을 수 있고, 기장을 심으면 술 담글 수 있으니, 永州의 백성으로 달게 살다 죽을 것이로되, 공연히 봉록과 식읍만 낭비하고 보답이 없어, 아래로는 농부들에게 부끄럽고, 위로는 왕궁에 부끄러워, 지난날의 잘못과 허물을 이리저리 따져보면 밤낮으로 엎치락 뒤치락하여, 음식을 먹어도 한 번도 입에 맞고 마음이 편안한 적이 없었다. 이 어찌 젊어서 명예를 좋아하고 맛있는 것만을 찾다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니겠는가? …… 우리 가문을 떨쳐 일으키는 것은 오직 너에게 희망을 걸 뿐이로다. 29)

28) 卷 24, 〈送游序〉: 「人咸言, 吾宗宜碩大, 有積德焉. 在高宗時, 并居尙書省二十二人, 遭諸武, 以故衰耗, 武氏敗, 猶不能興. 爲尙書吏者, 間十數歲乃一人. 永貞年, 吾與族兄登, 并爲禮部屬. 吾黜, 而季父公綽更爲刑部郎, 則加稠焉. 又觀宗中爲文雅者, 炳炳然以十數, 仁義固其素也, 意者其復興乎? 自吾爲僇人, 居南鄉, 後之穎然出者, 吾不見之也.」

29) 卷 24, 〈送從弟謀歸江陵序〉: 「於序! 吾宗不振久矣. 識者曰: “今之世稱有人焉.” 若謀之出處, 庸非所謂人歟? …… 吾不智, 觸罪橫越楚閩六年, 築室茨草, 爲園乎湘之西, 穿池可以漁, 種黍可以酒, 甘終爲永州民, 又恨徒費祿食而無所答, 下今農夫, 上顯王宮, 追計在時咎過, 日夜反覆, 無一食而安於口平於心. 若是者, 豈不以少好

從弟 柳謀에게 주는 贈序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이유는 가문을 부흥시키지 못하고 永州에서 일생을 마칠지도 모른다는 초조감 때문이다. 柳僞에게서 받았던 기대와 당부를 이제는 그를 찾는 다른 친척들에게로 전한다.

聖人の 道를 얻는 데 부지런히 힘쓰고 여기에 孝悌의 德을 더해서 지난날 홀로했던 우리 가문의 모습을 되찾는 것, 이것을 나는 澥에게서 바라노라. 너는 떠나느냐? 우리 宗中 사람들 만나거든 내 대신 사죄를 전하고 힘써 노력하여라. 太山의 산기슭까지 이르렀다가 멈춰서 더 이상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오로지 물이 끝없이 흐름을 배워라. 나는 너를 보내고 이 蠻夷 땅에서 늙어 죽으리라.³⁰⁾

〈送從弟謀歸江陵序〉와 〈送澥序〉 등 일가 친척에게 주는 贈序에서 위와 같이 쇠락해가는 가문을 비관했는데, 長安에서 출세의 길을 달리던 시절에 柳宗元 자신이 지냈던 가문 부흥의 기대를 저버리게 되었다는 죄책감과 초조함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4) 隱遁者

柳宗元에게 있어서 오랜 貶謫 생활은 관직에 진출하여 백성에 이로움을 주는 나름대로의 경륜을 펼칠 기회를 잃은 실의의 나날이었 으면서 한편으로는 많은 은둔 처사·道人·佛者 등을 만나 교류함으로써 사상적인 면에서 성숙하는 계기를 가진 생활이기도 했다. 특히 韓愈를 중심으로 대두되기 시작하는 儒家의 정통 이론에 경도되어 다른 사상을 무조건 배척하고 이단시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다양한 사상으로부터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철학사적인 길을 걸

名譽, 嗜味得毒, 而至於是耶? …… 振吾宗者, 其惟望乎爾。」

30) 卷 24, 〈送澥序〉: 『動聖人之道, 輔以孝悌, 復禱時之美, 吾於澥焉是望。汝往哉! 見諸宗人, 爲我謝而勉焉。無若太山之麓, 止而不得升也, 其唯川之不已乎。吾去子, 終老於夷矣。』

으므로써 어떤 면에서는 유익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들과 교류하는 모습은 그의 書信·碑誌 등 여러 문체에서 언급되고 있거니와 여기서는 贈序를 통하여 그들과 교류했던 흔적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로, 〈送韓豐群公詩後序〉·〈送易師楊君序〉·〈送詩人廖有方序〉 등을 통해서 儒者이면서 관직에 미련을 갖지 않고 산림에 묻혀 사는 처사들과의 교류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送韓豐群公詩後序〉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春秋 시대 쫓나라에 羊舌向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명성을 날리고 뛰어난 공적을 세워 당시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그의 형 羊舌華는 덕을 감추고 빛을 숨겨서, 속세를 떠나 화명을 보존하여, 사대부들은 向과 어울리지 않으면 華를 아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러나 孔子는 向을 '정직을 물려받고 정의를 따른 인물'이라고 칭찬했고, 또 華를 '견문이 많고 내적 수양을 잘 했다'고 칭찬하여, 세상에 나아간 동생과 은거한 형이 모두 존경을 받아 책으로 기록되어 전해지는 영광을 안았다. 그러므로 羊舌氏의 미덕은 지금까지 사장되지 않았다.³¹⁾

이와 같이 〈春秋〉에 전해지는 羊舌向·羊舌華 형제의 故事를 설명하고 있다. 동생 向은 현실 정치에 참여하여 공적을 세움으로써 명성을 날리고, 형 華는 덕망이 있으되 세속을 떠나서 은거하여, 형제가 나란히 역사에 기록되어 길이 보존된 사실을 贈序의 머리말로 쓰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柳宗元의 知友 韓泰 형제를 소개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長安에서 韓泰를 만나 옛 道를 따라 今世에서 사귀면서, 우리

31) 卷 25, 〈送韓豐群公詩後序〉: 『春秋時, 晉有叔向者, 垂聲遠烈, 顯白當世, 而其兄 銅鞮伯華, 匿德藏光, 退居保和, 士大夫其不與叔向遊者, 罕知伯華矣, 然仲尼稱叔向曰, 遺直由義, 又稱伯華曰, 多聞內禮, 進退兩尊, 榮於策書. 故羊舌氏之美, 至于今不廢.』

兄(韓豊)을 알게 되었다.兄의字는茂實이다.돈독하고질박하며변화를알고, 넓고화명하며절개를지켜, 온순증후하고곧은道와작을이루었다.항상글을짓고책을저술하여,禮家에관한것을논했는데,古今の것을조목조목모아서체재와분량을크게갖추었으며,명성을버리고실속을택하여담박하게살아갔다.훗날마땅히현달한사람이라칭송을받아야할텐데,그임무가바로우리에게있지않은가!그러한즉韓氏형제의홀륭함도장차빛을발하리라.32)

柳宗元은貞元9년(793년)에進士에급제했고,韓泰는11년(795년)에進士에급제하여,두사람이長安에서우정을맺었다.이후韓泰의형韓豊과도알게되었다.柳宗元은동생韓泰는進士에급제하여입신양명의길에발을들여놓고형韓豊은세상에드러나지않으려는상황을앞서소개한羊舌向·羊舌華의故事에대비하려한것이다.“훗날마땅히현달한사람의칭송을받아야할텐데,그임무가바로우리에게있지않은가!”라고한것은羊舌向·羊舌華형제의미덕이孔子의칭찬에의하여인멸되지않았듯이자기들이孔子의역할을담당하여韓泰·韓豊형제의미덕을인멸되지않도록전하겠다는기탁의수법이다.이와같이〈送韓豊群公詩後序〉는전반의故事와후반의서술을대비시킨구도로隱者韓豊의학문과덕망을부각시킨敘事的贈序이다.

또한《易》의연구에전념하여기왕의업적을이어받고새로운경지를독보적으로개척했으면서姓名을숨기고다니기때문에博士의대열에끼지못한楊君의행적을칭송한것으로〈送易師楊君序〉가있다.이贈序는세태의易學을비판하는것으로시작한다.

32)앞과 같음:「宗元常與韓安平過於上京,追用古道,交於今世,以是知吾兄矣.兄字茂實.敦朴而如嬰,弘和而守節,溫淳重厚,與直道爲伍.常續文著書,言禮家之事,條綜今古,大備制量,遠名居實,澹泊如也.他日當爲達者稱焉,在吾情乎!則韓氏之美,亦將焜耀於後矣.」

오늘날 《易》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스승의 학설을 끝까지 탐구하거나 孔子를 근본으로 하여 이어받지 못하고, 사실과 관계없는 외적인 것에서 제멋대로 생각하고, 이치를 벗어난 것으로 다루고 대립한다. 새롭게 하려고 힘쓰는 것을 명성을 얻는 길로 생각하고, 변설을 늘어놓는 것을 높은 경지라고 생각하여, 뿌리에서 떨어져 우듬지만을 뒤흔든다. 따라서 伏羲 · 文王 · 周公 · 孔子의 깊은 뜻을 함부로 헐뜯고 혼란을 일으켜, 이들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다. 33)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끝까지 탐구하거나 孔子의 설을 근본으로 삼지 않고 새로운 학설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일견 학문의 창조적 자세로 보일 수도 있지만, 우선 기존 업적의 충실한 습득이 새로운 창조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기존의 학자들을 비판했다. 이에 반하여 御史中丞 崔能이 楊君을 대하는 모습과 楊君의 행적을 서술함으로써, 楊君이 姓名을 숨기고 다니지만 그의 易學이 탁월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옛 성현의 설을 배척하지 않고 易學이 심오한 경지에 이른 점에서, 弘農 楊君 같은 사람이 드물다. 御史中丞 崔公은 박학하고 儒道를 지켰으며, 사물에 널리 통달하고 禮를 좋아했다. 그러므로 楊君이 찾아왔을 때 燕堂에서 묵게 하고 풍성한 음식을 제공했고, 매일 그 지방의 학자를 모아 묻고 토론하고 고금을 꿰뚫게 하여, 제각기 흠어졌던 설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귀착되고, 어둡고 혼미했던 설들이 밝게 드러났다. 楊君의 말은 마치 황당한 것 같으면서도 聖人과 어긋나지 않았고, 이론은 마치 제멋대로인 것 같으면서도 바름을 잃지 않아, 다른 기이한 설을 세워 명성을 세우려 하지 않고, 단지 그 뜻에 통달하는 것에 힘쓸 뿐이었다. 34)

33) 卷 25, 〈送易師楊君序〉: 「世之學《易》者, 率不能窮究師說, 本承孔氏, 而妄意乎物表, 爭伉乎理外. 務新以爲名, 縱辯以爲高, 離其原, 振其末. 故羲文周孔之奧, 詎曾混亂, 人罕由而通焉.」

34) 앞과 같음: 「不違古師, 以入道妙, 若弘農楊君者, 其鮮矣. 御史中丞崔公, 博而守儒, 達而好禮. 故楊君之來也, 館于燕堂, 饋之侯食, 日命合邦之學者, 論說辯問, 貫穿上下, 揮散而咸同, 幽昏而大明. 言若誕而不乖於聖, 理若肆而不失於正, 不爲他奇以立名氏, 姑務達其旨而已.」

崔能의 '매일 학자를 모아 묻고 토론하고 고금을 꿰뚫게 하여, 제각기 흩어졌던 설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귀착되고, 어둡고 혼미했던 설들이 밝게 드러나게 했다'는 것이나 '楊君의 말은 마치 황당한 것 같으면서도 聖人과 어긋나지 않았고, 이론은 마치 제멋대로인 것 같으되 바름을 잃지 않았다'는 것은 楊君의 易學이 '學古'의 바탕 위에 '創新'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말미에는 楊君의 이런 깊은 학문이 조정의 인정을 받아 博士의 대열에 들어서는 것이 조정의 방침이요, 그런 조정의 뜻을 받드는 관리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길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담았다. 이런 은둔 처사에게 주는 贈序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만한 인재들이 등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하는 柳宗元의 심정이다. 〈送詩人廖有方序〉에서 느낄 수 있는 廖有方에 대한 柳宗元의 감정 또한 동일한 것이다.

交州에서는 南金·珠璣·珊瑚·象犀 등의 보물이 많이 난다. 그 땅에서 나는 것들이 모두 기이하며, 초목들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나는 일찌기 빛나는 陽德이 유독 아름다운 꽃과 보물에만 깃들고 사람에게는 깃들지 않음을 괴이하게 생각했다. 廖生은 강건하고 중후하며, 효성·우애·믿음·겸손의 덕이 있어, 안은 질박하고 밖은 찬란하며, 唐詩를 지으면 大雅의 道가 담겨 있으니, 진정 陽德이 깃든 사람이 아닌가? 이는 지금 세상에서는 드문 일이다. 오늘날 보통 사람들은 모두 아름다운 꽃과 보석은 귀하게 여길 줄 아는데, 廖生과 같은 사람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과연 있다면 나는 보통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려다. 그러나 역시 지금 세상에서는 드물 것이다.³⁵⁾

35) 卷 25. 〈送詩人廖有方序〉: 『交州, 多南金·珠璣·珊瑚·象犀. 其產皆奇怪. 至於草木亦殊異. 吾嘗怪陽德之炳燿, 獨發於紛葩瓊麗, 而罕鍾乎人. 今廖生剛便重厚, 孝悌信讓, 以質乎中, 而文乎外, 爲唐詩有大雅之道, 夫固鍾於陽德者邪! 是世之所罕也. 今之世, 恒人其於紛葩瓊麗, 則凡知貴之矣, 其亦有貴廖生者耶? 果能是, 則吾不謂之恒人也. 實亦世之所罕也.』

交州의 특산물과 廖有方을 대비하여 서술한 이 贈序에는 廖有方이라는 인물을 부각시키면서 특산물이 귀한 것만 알 뿐 이런 인물은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交州에서 썩게 만드는 世人에 대한 비난과 조소가 깔려 있다.

둘째로, 道人の 길을 가려는 婁圖南과의 교유이다. 婁圖南은 柳宗元이 貞元 6년 進士 시험에 응시하기 시작할 때부터 長安에서 이미 학문과 문장으로 명성을 떨쳤던 인물이다.³⁶⁾ 그 후 약 15년 동안, 婁圖南은 官界에 진출할 뜻이 없어 處士로 지냈고, 柳宗元은 進士에 급제하여 출세가도를 달리던 중 永州로 貶謫되었다.³⁷⁾ 이제 婁圖南이 道人の 방술을 연마하려 떠나려 하자, 柳宗元은 그를 전송하면서 한편으로 그가 자꾸만 세상을 멀리 하는 것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婁圖南은 아래와 같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오늘날 과거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귀족이나 권세가와 사귀고 친척에게 의지하여, 서로 의기투합하면 날개를 달고 풍파도 일으킬 듯 권세가 등등하다. 그런데 내게는 그런 배경이나 친척이 없다. 아니면, 먹고 마실 것을 꾸밈하게 차리거나, 고급 수레에 좋은 말을 매어 타고다니며 朋黨끼리 환심을 사서, 서로 번갈아가며 도와주어 명성을 얻는데, 이를 승낙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화를 내며 배척할 정도이다. 그런데 내게는 이런 朋黨이 없다. 아니면, 체력 좋고 인사를 잘 해서, 아침 저녁으로 보통 사람 앞에서 급신거리고, 高官의 문으로 달려가고, 大爵의 수레를 찾아가서, 억지로 웃으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비굴하게 기분을 맞춰서, 어느날 갑자기 흠치듯 상대방의 인정을 받아 그 재주를 팔려고 한다. 그런데 내게는 이런 재주가 없다. 결국 내 자신이 그런 수고를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 그만두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중이다. 湖江을 건너 豫章에 갔고, 南海에 갔다 다시 桂州를 경유하여 남하하려고 한다. 어릴 적부터 선악을 복용하여 장수를 누린다는 道士의 말을 좋아했는데,

36) 卷 25, 〈送婁圖南秀才遊淮南將入道序〉: 「僕未冠, 求進士, 聞婁君名甚熟。」

37) 앞과 같음: 「…… 後十餘年, 僕自尚書郎, 謫來零陵。觀婁君, 澗爲白衣, 居無室宇, 出無僮御。僕深異而訊之。」

그 방식을 아직 다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서 이를 구하려는 것이다. 38)

婁圖南의 말이다. 그가 보기에 당시 사회에서 官界에 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조건 즉 배경·봉당·아침이 없어서 出仕를 포기하고 처사로 떠돌다가 결국은 道士의 길을 가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婁圖南이 말하는 '三無有說'은 당시 과거 제도 및 관리 등용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더욱 의심스러웠다. 옛날 進士에 급제한 사람들을 보면 꼭 婁君의 말과 같은 것은 아니었다. 또한 婁君만큼 문장에 뛰어난 사람도 적었고, 納言³⁹⁾처럼 큰 덕을 이룬 조상이 도와준 사람도 없었고, 崔比部(崔鵬)·于衛尉(于部) 등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준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도 방에 이름이 오른 사람이 백수십 명이었다. 지금 婁君은 부족한 것이 아니다. 다만 관직이 내키지 않아 은둔하는 것일 뿐이다. 40)

婁圖南은 官界 진출에 자신의 실력 이외에 배경·봉당·아침 등 다른 요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염증을 느꼈고, 柳宗元은 충분한 실력을 갖추었다는 전제 하에, 필요하다면 다른 요소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柳宗元의 이런 입장은 학문을 연마하고 덕행을 쌓았으면 '시대에 보탬이 되고 만물에 이익을 주는'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제일로 여기는 참여주의와 무관하지 않다.

38) 앞과 같은: 「今夫取科者, 交貴勢, 倚親戚, 合則揮羽翮, 生風濤, 沛焉而有餘. 吾無有也. 不則鑿飲食, 馳堅良, 以驪于朋徒, 相質爲資, 相易爲名, 有不諾者, 以氣排之. 吾無有也. 不則多筋力, 善造請, 朝夕屈折於恒人之前, 走高門, 邀大車, 矯笑而僞言, 卑陋而媁媁, 偷一旦之容以售其伎. 吾無有也. 自度卒不能堪其勞, 故舍之而遊. 逾湖江, 出豫章, 至南海, 復由桂而下也. 少好道士言, 餌藥爲壽, 未盡其術, 故往且求之.」

39) 婁圖南의 증조부 婁師德. 武后 때 명성을 떨침.

40) 앞과 같은: 「僕聞而愈疑. 往時觀得進士者, 不必若婁君之言. 又少能類婁君之文學, 又無納言之大德以爲之祖, 無比部衛尉以爲之知. 而升名者百數十人. 今婁君非不足也. 顧不樂而遁耳.」

무릇 君子가 세상에 나서는 것은 道를 행하기 위함ियो, 나서지 않는 것은 홀로 그 자신을 잘 수양하기 위함이다. 지금 천하는 태평하게 다스려지고, 주상께서 인재를 찾는 조서를 자주 내리신다. 襄君의 자질은 관직을 맡아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고, 문장은 주상의 위풍을 선양하고 덕망을 노래하여 세상에 행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그와 道를 같이 하여 주상께 나아가 그를 추천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는 갑자기 處士가 되려고 하지만 나는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노쇠하여 휴식을 취하고자 한다면, 그의 나이가 너무 젊고 한창이며, 허약하여 자신을 보양하고자 한다면, 그는 너무 크고 건장하다. 그가 은둔하려는 까닭을 물어보아도 아무 명분이 없다. 만약 구차하게 오래 살 길을 피하는 것을 道로 여긴다면, 이 또한 내가 말하는 道가 아니다.⁴¹⁾

柳宗元の 입장에서 “지금 천하가 태평하게 다스려진다”고 말한 것의 사실 여부를 막론하고,⁴²⁾ 道를 행하기 위해 세상에 나서는 적극적인 실천 정신을 君子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았기 때문에 襄圖南이 처사로 떠도는 것을 반대한다. 더구나 道士의 방술 같은 것은 일신의 건강과 장수만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반대한다.

무릇 형체가 이 땅에 깃들어 사는 것을 내가 사사로이 할 수 없다. 堯舜孔子의 뜻을 구하기를 좋아하여 오직 얻지 못할까 염려하고, 堯舜孔子의 道를 행할 기회를 만나면 오직 만족스럽게 행하지 못할까 염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래 사는 것은 괜찮다. 그 뜻을 구하여 얻고, 그 道를 행하여 만족하면, 비록 일찍 죽더라도 그 누가 슬퍼하겠는가?

이제 氣를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을 먹는 것으로 여기고, 咀嚼하는 것을 신선으로

41) 앞과 같음: 「夫君子之出,以行道也,其處,以獨善其身也. 今天下理平,主上亟下求士之詔. 襄君之可以任職用事,文可以宣風歌德,行於世,必有合其道而進薦之者. 遽而爲處士,吾以爲非時. 將曰老而就休耶? 則甚少且銳. 羸而自養耶? 則甚頑且武. 問其所以處,咸無名焉. 若苟焉以圖壽爲道,又非吾之所謂道也.」

42) 柳宗元の 이 말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전제 군주 시대에 讖者들은 마음 속으로는 당시 사회가 혼탁하다고 느끼고 있을지라도 대외적으로는 「태평성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군주에 대한 일종의 예의였다.

여기고, 아무 일이 없는 것을 한가하다 여기고, 죽지 않는 것을 사는 것이라 여긴다면, 깊은 산에 있는 나무나 돌, 큰 연못에 있는 거북이나 뱀은 모두 나이먹고 오래 살았는데, 이것들은 道에 있어서 어떠한가?⁴³⁾

柳宗元은 婁圖南의 재능과 학문을 인정했고, 시국에 대한 그의 견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道家의 養生術을 찾아나서는 그의 행동은 찬동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의 입장에서 보면 養生術이란 오로지 나무나 돌·거북이나 뱀과 같이 단지 오래 사는 삶을 누리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문·사상의 효용은 어디까지나 濟世求民에 있다고 인식했던 柳宗元에게 개인의 건강과 장수만을 추구하는 養生術은 부당한 것이었다. 이 점은 그가 書信을 통하여 양생술을 극구 반대한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이 佛者와의 교류이다. 柳宗元 본인이 “어릴 때부터 佛道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永州에 가서 생활하면서부터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얻은 바가 있었다”⁴⁴⁾고 술회하고 있다. 또한 당시 儒者들이 佛道에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 佛道의 수양에 전념하는 것은 그리 희귀한 일이 아니었으며, 皇帝의 경우에도 武宗을 제외하면 대부분 佛敎에 호의적인 태도를 취해서, 승려와 교류하거나 師弟 관계를 맺어서 승려가 궁중을 마음대로 출입하는 경우도 있었다.⁴⁵⁾ 이에 따라 조정 내에서 佛敎에 대한 배척과 찬동의 논의가 비밀비재했다. 유명한 韓愈의 〈論佛骨表〉가 그 중의 한 예이다. 柳宗元도 불교에 특히 배타적인 입장을 취했던 韓愈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43) 卷 25, 〈送婁圖南秀才遊淮南將入道序〉: 「夫形軀之寓於土, 非吾能私之, 幸而好求堯舜孔子之志, 唯恐不得, 幸而遇行堯舜孔子之道, 唯恐不慊, 若是而壽可也. 求之而得, 行之而慊, 雖夭其誰悲? 今將以呼噓爲食, 咀嚼爲神, 無事爲閑, 不死爲生, 則深山之木石, 大澤之龜蛇, 皆老而久, 其於道何如也.」

44) 卷 25, 〈送巽上人赴中丞叔父召序〉: 「……吾自幼好佛, 求其道, 積三十年, 世之言者罕能通其說, 於零陵, 吾獨有得焉.」

45) 孫昌武, 《佛敎與中國文學》(上海, 人民出版社, 1988. 8.), 86쪽~88쪽 참조.

儒者 韓退之가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일찌기 내가 불교의 설을 좋아하는 것을 병통으로 여기고 승려과 어울리는 것을 비판한 적이 있었다. 최근에 隴西 李礎가 東都에서 나를 찾아왔는데, 退之가 또 서찰을 보내 나를 비판하고, '元生을 전송하는 序⁴⁶⁾를 보니 불교를 배척하지 않았다'고 핀잔했다.⁴⁷⁾

비난하는 韓愈나 반론을 펴는 柳宗元이나 자신들이 견지하는 사상적 입장과 관계된 본질적인 성격을 띤 문제이기 때문에 준비된 논리는 치밀하다.

첫째, 韓愈는 佛學이 정통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배척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柳宗元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불교에는 정말 배척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어, 그 설이 왕왕 《易》이나 《論語》와 합치되기 때문에, 나는 진정 좋아한다. 또한 性情을 크게 해주는 바가 있어, 孔子와 道를 달리 하지 않는다.⁴⁸⁾

이와 같이 佛道에는 孔子의 道와 합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배척할 수 없다고 하고, 揚雄의 예를 들어, 揚雄은 '莊子' '墨子' '申不害' '韓非子'로부터 취한 바가 있어도 韓愈는 그를 비난하지 않았는데, 사실 불교의 이론은 '莊子' '墨子' '申不害' '韓非子' 만큼 奇險怪僻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둘째, 韓愈는 佛道가 외래 문화 --- 夷 --- 이기 때문에 배척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46) 卷 25에 〈送元十八山人南遊序〉와 〈送元暲師序〉가 수록되어 있는데, 어느 것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47) 卷 25, 〈送僧浩初序〉: 「儒者韓退之與余善, 嘗病余嗜浮圖言, 嘗余與浮圖遊. 近西李生礎自東都來, 退之又寓書罪余, 且曰見送元生序, 不斥浮圖.」

48) 앞과 같음: 「浮圖誠有不可斥者, 往往與易論語合, 誠樂之. 其於性情爽然, 不與孔子異道.」

道の 내용을 보지 않고, 이민족의 것이기 때문에 배척해야 한다고 하면, 惡來·盜跖과 같은 도적은 중국 출신이라 하여 친구로 삼고 季札·由余와 같은 현인은 이족 출신이라 하여 천시하겠는가? 이는 내가 말하는 '명분을 버리고 실속을 추구하는 것(去名求實)'이 아니다. 49)

'去名求實' 하는 求道の 입장에서 더더우기 佛道는 배척할 수 없다고 했다. 그 근거는 역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내가 취하는 것은 《易》·《論語》와 합치되는 것이니, 비록 聖人이 다시 태어난다 해도 이를 배척할 수 없다" 50)고 하여 단호한 태도를 표명했다.

세제, 韓愈는 박박 깎은 머리에 검은 장삼을 입고, 夫婦·父子 관계도 무시하고, 논밭 경작이나 누에치기 등의 생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얻어먹고 사는 佛者의 행적을 비난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柳宗元도 동조했다.

韓愈의 주장을 일부는 반박하고 일부는 동조하고 있지만 사실 柳宗元은 佛道에 몰두하였거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다음의 정리 부분에 나타난다.

내가 불교의 설을 좋아함은 이상의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이유는 아직 다 말했다고 할 수 없다. 佛道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관직에 연연하지 않고, 능력을 닦지 않고, 山水를 즐기고 한가함과 편안함을 좋아한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오직 관직 한 자리 얻기에만 급급하여 서로 티격태격하는 것을 병통으로 여겨왔으니, 위와 같은 佛者의 행실을 버리면 그 무엇을 따르겠는가? 내가 佛者와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51)

49) 앞과 같음: 『果不信道而斥滿以夷, 則將友惡來盜跖, 而賤季札由余乎? 非所謂去名求實者矣.』

50) 앞과 같음: 『吾之所取者, 與易論語合, 雖聖人復生, 不可得而斥也.』

51) 앞과 같음: 『吾之所以嗜浮圖之言以此. 與其人遊者, 未必能通其言也. 且凡爲其道者, 不愛官, 不爭能, 樂山水而嗜閑安者爲多. 吾病世之逐逐然唯印組爲務以相軋

柳宗元이 佛道를 배척하지 않은 이유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孔子의 道에 부합되는 것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즉 濟世教民의 道를 실행하는 것에 유익한 학문이라면 학파에 연연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것이라는 포용적 자세에서 기인한 것이다.

일찌기 太史公이 “孔子를 배우는 사람은 老子를 배척하고 老子를 배우는 사람은 孔子를 배척하니, 추구하는 道가 다르면 함께 도모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내가 보면 老子 역시 孔子의 기타 유파에 속하므로, 서로 대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의 말대로라면 하물며 楊朱·墨翟·申不害·商鞅·刑家·名家·縱橫家의 학설에서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험뜯고 비방하고 치고박는 내용을 이루 말할 수가 있는가? 그러나 이들은 모두 세상에 도용되는 바가 있다. 太史公이 죽고, 그후 석가가 있었으니, 학자들이 유달리 심하게 놀라고 괴상히 여기고 배척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52)

諸子の 사상 중에서 ‘佐世’에 유익한 부분이라면 서슴없이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심한 배척을 받는 佛學과 정통의 자리를 점점 더 굳혀 가는 儒學과는 兼全을 주장하기까지 한다.

여기 河南 출신 元生이라는 자가 있다. 그 사람을 보면, 도량이 넓고 바탕이 곧아, 外物이 그의 의지를 꺾을 수 없으며, 그 학문을 보면, 박학하고 고금을 관통하여, 어떤 비난도 그의 道를 넘어뜨릴 수 없다. 예전에 달랐던 것을 통합해서 같게 하고, 취사 선택 융합하여 道와 크게 합치되었다. 장점은 모두 펼쳐 말하고 기이하고 잡스러운 것은 모두 제거해서 孔子

也。則會是其焉從？吾之好與浮圖遊以此。』

52) 卷 25, 〈送元十八山人南遊序〉: 『太史公嘗言: “世之學孔氏者, 則黜老子。學老子者, 則黜孔氏。道不同, 不相爲謀。”余觀老者, 亦孔氏之異流也, 不得以相抗。又況楊墨申商刑名縱橫之說, 其迭相訾毀抵牾而不合者, 可勝言也? 然皆有以佐世。太史公沒, 其後有釋氏, 固學者之所怪駭舛逆其尤者也。』

와 道를 같이하고자 했다. 53)

이와 같이 元十八山人이 儒佛의 학문에 兼通한 점을 강조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送文暢上人登五臺還遊河朔序〉에서는 남북조시대 道林·道安·遠法師·休上人(惠休) 등의 佛者가 謝安石·王逸少·習鑿齒·謝靈運·鮑召 등의 儒者와 교유하던 일화와 현재 沙門의 上首인 文暢과 교유하는 韓阜·鄭公·楊公·劉公 등을 대비하여 ‘統合儒釋’을 주장한다.

柳宗元이 佛道에 호의적이었다고 해서 당시 佛者의 여러 모습에 모두 만족스러웠던 것은 아니다. 명분만 추구하고 실속을 보지 않아 아집의 폐단에 빠졌다고 儒者들을 비판하는 한편, 佛者라고 하면서 佛道를 구하는 것에 정진하지 않고 겉모양만 佛者인 체 하는 행태를 더욱 가혹하게 비판한다.

代 지방의 한량들은 문장을 공부하다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할 것 같으면 佛道를 공부한다 하여 겉모양만 佛者인 체 행세하며 고고하다 여기고, 佛道를 공부하다 성실하게 정진하지 못할 것 같으면 또 文章을 짓는다고 행세하며 호방하다 여겼다. 따라서 문장을 짓는 것이나 佛道를 배우는 것에 대해 난감하게 되는대로 큰소리를 치고 다녔는데, 세상 사람들 역시 관대하여 이들을 벌하지 않았다. 54)

이도저도 아닌, 즉 文章 혹은 佛道에도 전념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자들을 배척하고 있다. 한편으로, 夫婦父子 관계를 등지고

53) 앞과 같음: 「今有河南元生者。其人閑曠而質直。物無以挫其志。其爲學恢博而貫統。數無以踳其道。悉取向之所以異者通而問之。搜擇融液。與道大適。咸伸其所長而黜其奇駁。要之與孔子同道。」

54) 卷 25, 〈送方及師序〉: 「代之游民。學文章不能秀發者。則假浮圖之形以爲高。其學浮圖不能愚癡者。則又託文章之流以爲放。以故爲文章浮圖。率皆縱誕亂雜。世亦寬而不誅。」

佛家에 귀의하는 패륜의 집단이라고 한 韓愈의 비난에도 동조하고 있거니와, 특히 이 점을 악용하여 사회적인 책임을 도피하려는 행위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내가 오늘날 佛道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니, 어떤 이는 그 道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孝를 벗어나야 통달한다 생각하고, 모든 감정을 없애고 마음을 비우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 佛家の 책에도 《大報恩》 10篇이 있어, 모두 佛道의 수행은 孝에서 시작해야 달성된다고 말하고 있다. 세간의 방탕하고 허황되고 태만하고 게으른 자들이 비록 그 道를 수행한다지만 그 책의 가르침을 곧잘 어기고 있다. 55)

오늘날 禪을 말하는 사람들이, 방종하고 그릇된 점이 있는데, 서로 번갈아가며 스승이라 일컫고, 헛된 말을 멋대로 취하여, 간략하고 편하게만 하려 하고 진실을 전도시켜, 자기의 함정에 빠지고 또 남의 함정에 빠진다. 또한 본체에 대해서는 말을 잘 하면서 실제로 응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 가지는 잠시라도 떨어져서는 안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완전히 다른 것으로 분리시킨다. 이는 세상의 큰 근심거리이다. 56)

한편으로 經·論을 통하여 입문한 후 착실하게 수양을 쌓지 않고 걸모양만 닦으려는 일부 佛者들의 행태를 비판한다.

佛家の 道는 크고 포용하는 것이 많다. 무릇 物外의 것에 뜻을 두고 속세에서 제약받는 것을 수척로 여기는 사람들이 佛家에 입문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겉은 佛者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명칭은 佛者지만 행실을 달리 하는 사람이 있어, 고집을 부리며 성급하게 굴어

55) 卷 25, 〈送元暲師序〉: 「余觀世之爲禪者, 或不知其道, 則去孝以爲達, 遺情以貴虛. …… 禪之書有大報恩十篇, 咸言由孝而極其業. 世之蕩誕慢訕者, 雖爲其道而好遠其書.」

56) 卷 25, 〈送禪上人南遊序〉: 「今之言禪者, 有流澆舛謬, 迭相師用, 妄取空語, 而脫略方便, 顛倒眞實, 以陷乎己, 而又陷乎人. 又有能言體而不及用者, 不知二者之不可斯須離也, 離之外矣. 是世之所大患也.」

동류와 멀어지거나, 여유를 부리며 느릿느릿 자기 뜻대로 행하는 등 한 가지 부류가 아닌데, 모두 머리를 깎고 장삼을 입고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으니, 그 누가 알아볼 수 있겠는가?⁵⁷⁾

이런 걸모양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껍데기 뿐인 佛者들을 비판하면서, 진정한 佛道의 수양에 전념한다면 “그 책을 탐구하고, 그 말을 얻고, 그 뜻을 토론하여, 넓혀서 크게 하여 萬 마디를 넘어서도 번잡하지 않고, 묶어서 개괄하여 한 마디를 해도 빠트리지 않는”⁵⁸⁾ 경지라야 될 것이라고 했다. 물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여기에 더하여 儒學에도 정통한 식견을 가지고 있다면 이상적일 것이다.

Ⅲ. 結 論

柳宗元의 贈序를 대상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抒情·敘事·說理 등의 서술 기법과 내용에 따라 살펴보았다. 贈序의 원형은 ‘작별할 때 주고 받는 말’이다. 文人들의 경우에는 단순히 말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詩를 지어 贈答을 하게 되어 魏晉南北朝 시대에는 贈答詩가 대대적으로 유행했고, 贈序는 贈答詩를 다시 散文化했다가, 唐代에 贈序가 대량으로 창작되어 하나의 문체로서 확립되었다. 이 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작가가 韓愈와 柳宗元이다. 贈序는 떠나는 사람에 대한 석별의 정·축원의 말·당부의 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지만, 韓愈와 柳宗元에 이르러 贈序의 내용이 대폭 확대되어, 詩文을 대해서 논하고, 시사를 토론하고, 감회를 기탁하는 등 다양한 내용에 敘事·說理·抒情 등 다양한 서술 기법을 발휘했다.

57) 卷 25, 〈送玄暉歸幽泉寺序〉: 「佛之道, 大而多容. 凡有志乎物外而恥制於世者, 則思入焉. 故有貌而不心, 名而異行, 剛狷以離偶, 紆舒以縱獨, 其狀類不一, 而皆童髮駁服以遊於世, 其孰能知之?」

58) 卷 25, 〈送龔上人赴中丞叔父召序〉: 「……窮其書, 得其言, 論其意, 推而大之, 逾萬言而不煩; 摭而括之, 立片辭而不遺。」

柳宗元은 贈序의 대상에 따라 상대방의 처지·조우 또는 이와 관계있는 시국의 상황에 대한 견해나 심정을 贈序에 담았다. 일가 친척을 대상으로 한 贈序에서는 주로 抒情的인 내용을 담았고, 기타의 贈序에서는 敘事的·說理的 서술이 주를 이루었다. 대상에 따라 내용과 서술 기법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구성 양식은 대체로 동일하여,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 前提에서 典籍·故事를 인용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여,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인 도리나 진리를 끌어내고, 둘째로, 展開에서 前提와 관계있는 대상 인물의 공적·선행·행위·인품·실수 등을 소개하고, 셋째로, 찬양·칭송·비판·격려 등의 내용으로 끝맺는다.